

‘아지를 추억하며...’



(주)유니트스트
대표이사

김종현

하늘은 높고 햇살은 눈부신 완연한 가을이다.
가까이 나무등걸 사이의 숲은 푸르는데 들판은 이미 누렇게 변했다.
주위를 돌아보니 창밖에 강아지 한 마리가 짹짹거린다. 계속 짹짹거린다.
주인이 풀어주니 너무 좋아라 날뛰다.
털복숭이라서 다리가 보이질 않는다. 구르고 물어뜯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우리집 막내가 무얼 알았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들었는지 강아지를 사달라고 조른다.
수시로 때때로 생각나면 조른다. 아파트에서 기를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와 아내 모두 귀찮아서 그랬을 것이다.
어린 생물의 귀여움을 왜 모르겠는가! 삶의 간난을 모르는 천진함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문득, 고등학교 때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생각이 난다.
처음 데려왔을 때 누나들과 의견이 분분하다가 내가 ‘아지’로 이름을 짓자 했더니 모두들 좋다고 했다. 강아지에서 강을 뺀 이름이었다. 하얗고 길지 않은 털을 가진 작은 체구였는데 잘 생기기도 하였거니와 하는 것이 너무 귀여워서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가족들 모두가 잘 해줘서 버릇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난 가끔 때리고 쫓아내곤 했다.
그런데 영리한 이 생물은 그런 나를 경계하면서도 잘 보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사람에게 친밀한 본능적인 행동 그 이상이었던 기억이 있다.
타지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동안은 집을 떠나 있었다.
어찌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서면 ‘아지’는 나를 몰라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금세 알아보고는 미친 듯이 좋아했다. 꼬리는 물론 머리를 크게 흔드는 독특한 모습의 귀여움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일요일이 되어 돌아 갈 땐, 기차를 타러 가는 길모퉁이까지 ‘아지’는 수백 미터를 계속 따라와서는 내가 쫓던지 아닌 스스로 멀리 왔다 싶으면 돌아가곤 했다.
혼자 살기가 힘이 들어 통학할 때 ‘아지’는 정거장 가는 길을 새벽마다 따라왔고 저녁이 되어 집에 오는 길에 내가 보이면 멀리서부터 머리를 흔들며 달려오곤 했다. 이러한 살가움에 한 때의 작은 심술이 후회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지’가 보이지 않더니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동네 어른이 아마도 약을 먹고 죽어있는 ‘아지’를 주워 왔다.
나와 누나들은 크게 상심했다.
이렇게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젊음의 순수함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비단 내 경험만이 아닌 모든 젊은이들도 그렇다.
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직장으로 우리 회사를 택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종종 느낀다. 세상이 험령하지 않을지라도 기대감으로 총명한 눈을 깜빡이는 젊은 직장인을 본다. 이는 하나의 기쁨이다.
경험은 사람을 숙성시키지만 예측 가능하게 하고 세상을 모르는 천진함은 불안하지만 기대 이상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오늘도 세상에 갓 나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풍요와 신선함으로 채워주기를 기대한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서 젊음의 순진함은 아
름답다는 생각이 든다